

지역 소식통

김제시, 스마트스토어

초·중급반 교육생 모집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소평몰과 블로그의 장점을 결합한 블로그형 원스톱 소평몰 스마트스토어(초·중급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보화 교육은 지난 2월 라이브커머스(초·중급반) 등 총 5개의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정보화 능력 교육을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선도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스토어 초·중급반은 우수스토어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스토어 상품등록 및 홍보 방안 등, 스토어 상품정보 조회/수정, 판매와 정산관리 수업을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스토어 전시관리 교육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오는 21일부터 11월 13일까지(총 8회, 28시간) 진행되며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 2층 정보교육장에서 김제시 거주 농업인이면서 SNS활용 농산물 등의 유통·판매 관심도가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복지마을과 지평선 시니어클럽 운영 위탁 협약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8일 사단법인 복지마을(대표 장봉석)과 김제지평선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위탁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김제지평선시니어클럽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 위탁법인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심의회를 통해 법인의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사업단 운영능력 등을 심사해 사단법인 복지마을을 수탁 법인으로 선정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김제지평선시니어클럽은 앞으로 5년 동안 위탁 운영하면서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를 발굴 및 수행 등 노인일자리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노인복지시설로 지역 어르신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제8회 국제종자박람회 개막 성큼

16~18일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서... 국내 우수품종 홍보 · 80억 종자 수출 목표로 개최 전시관 · 전시포 운영 · 심포지엄 · 수출상담회 · 품종 설명회 ·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 마련

김제시는(시장 정성주)는 '2024 국제종자박람회'를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김제시 백산면 민간육종연구단지(백산면 씨앗길 232)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람회는 농식품부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종자산업 박람회다.

시는 국내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리고,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종자에서 시작되는 미래(Seed, Blooming Tomorrow)'란 슬로건으로 종자기업 뿐만 아니라, 농기자재 전·후방 기업 90개 사 등 참여를 확대하고, 해외바이어 초청 및 수출상담 지원을 강화해 80억원의 종자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 박람회는 제20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시상식과 연계 진행되며 특히, 16일(수)에는 YTN 기상예보 및 KBS 6시 내고향 프로에서 국제종자박람회 소개와 현장 분위기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김제시는 '2024 국제종자박람회'를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김제시 백산면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개최한다. <사진=김제시청 제공>

프로그램으로는 전시관·전시포 운영, 학술연구심포지엄, 수출상담회, 품종 설명회뿐 아니라 각종 체험 프로그램, 포토존, 푸드존을 갖추어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다양한 정보를 즐기고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핵심 콘텐츠인 야외 전시포(4.5ha)에서는 국내 종자기업과 기관의 우수품종(40작물 497품종)도 함께 전시된다.

또한 관람객의 불거리와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 코스모스 산책길과 화해정원을 조성했으며,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패션그늘막과 통행로 그늘막을 설치했다.

이 외에도 고무마 수확체험, 씨앗 팔찌·씨앗 감정만들기, 친환경 화분 만들기, 테라리움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이서 혁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순항'

완주군, 설계용역 중간 보고회... 층별 공간구성 · 평면계획 마무리

완주군이 이서면에 들어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일 완주군은 군청 소회의실에서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설계용역 마무리 단계의 중간 보고회 및 자문단 의견을 청취했다.

이서혁신 종합복지관은 이서면 용서리 779-1번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 15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문성철 완주부군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완공 후 주민접근 편의성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와 복지관 진입시 원활한 차도변경에 대한 예측, 향후 벌어질 주차난에 대한 대응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전국 우수 사회복지관 벤치마킹을 진행하고, 지난 4월



설계에 착수했다. 현재는 층별 공간구성 및 평면계획을 마무리한 상태로 설계 경쟁성 검토, BFI인증, 설계안정성 검토, 지방건설기술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오는 12월 초 설계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종합복지관 완공시까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종합복지관이 복지 거점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 어린이 급식소 식품알레르기 관리 강화

완주군, 시설장 대상 집합교육

완주군이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과 식품알레르기의 대처 방안 역량을 높이고 있다.

10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급식소 원장 및 센터장 등 시설장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어린이 시설의 식품알레르기 관리'를 주제로 식품알레르기의 증상과 특징, 원인식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특히, 어린이 시설에서의 체계적인 식품알레르기 관리법과 급식관리 방안을 통한 식품알레르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서식자료를 개발해 배포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집합교육을 통해 관내 어린이 급식소의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역량이 한층 강화됐길 바란다"며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완주군 내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 내달 2일 '아동권리영화제' 성공 위해 총력

조직위원회 회의 개최... 추진 상황 · 세부 내용 점검

완주군이 내달 2일 열리는 아동친화도시 아동권리영화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 회의를 열고 추진 상황과 세부 내용을 총괄하게 점검했다.

10일 완주군은 최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2024년 아동권리영화제 조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아동권리영화제 조직위원장인 서현석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 등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정도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영화제 진행 상황 보고, 심사위원 선정, 기념식순 및 홍보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금란 교육정책과장은 "아동권리영화제 조직위원회의 전문성과 경험이 올해 영화제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며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아동친화도시 아동권리영화제는 전국 100여 개 아동친화도시를 대표해 완주군이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와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4년 아동친화도시 아동권리영화제는 아동권리 인식확산과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8월~9월에 아동청소년, 가족 등 아동권리를 주제로 영화를 공모했다.

공모에서 선정된 초청작 등은 오는 11월 2일 완주군청 일원에서 진행되는 아동권리영화제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 아동권리영화제 홈페이지(www.waff.or.kr), 아동친화도시 블로그(https://blog.naver.com/wanjucfc)를 참조하면 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10일 완주군은 최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2024년 아동권리영화제 조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최우수기관 선정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서 장관상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위탁 운영 중인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에서 최우수(S등급) 기관으로 선정돼 10월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238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된 이번 평가는 종사자 역량, 자원관리,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이용자 권리, 지자체 참여도, 사업계획, 사업수행, 사례관리와 사업성과 부분으로 실시됐으며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최우수(S)' 등급을 받아 전북 도내 1위라는 뜻깊은 성과를 달성했다.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맞춤형 정신건강사업 및 도내 최초 24

시간 응급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 정신 및 자살위험자 발견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자·타해 위험에 신속 대응하고 있어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앞으로도 지역실정과 주민 요구도를 고려한 맞춤형 정신건강사업 추진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민의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업은 김제시보건소(063-540-2716~7),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063-542-1350)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